

광주서도 반일·아베 규탄 투쟁 ‘활활’

“총칼 대신 경제 앞세운 제2의 침략 노골화” 시민사회단체, 지역 곳곳서 궐기대회 잇따라 SNS상 “도쿄올림픽 불참”…불매운동 들불

광주 도심 곳곳에서 일본이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아베 정권의 경제도발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불매운동을 지속하거나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등 반일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오는 6일 오전 11시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아베규탄 투쟁 및 광주시민대회 성사를 위한 시국회의’가 진행되고, 10일 오후 6시30분 5·18민주광장에서는 ‘경제침략 아베규탄, 한미군사훈련 중단 촉구 광주시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2주년인 오는 14일 북구청 앞 소녀상 광장에서는 친일적폐 청산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북구평화인간띠잇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광주·전남 대학생 진보연합은 2시간 동안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강력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대부분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노골화한 경제전쟁에 의연하게 맞설 것을 촉구했다.

민중당 광주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조치는 총칼 대신 경제를 앞세워 일제강점기징용피해자 배상 판결

무력화시키고 굴복을 강요하는 제2의 침략 만행이다”며 “광주에서도 반일·아베 규탄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광주진보연대는 “식민통치 범죄를 사죄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이 마땅한데도

오히려 경제제재를 발동했다”면서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 커녕,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해 군사대국화를 계속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경제 군사적 하위 파트너로 길들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구평화인간띠추진위원회도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것은 지난 달 반도체 산업 핵심 소재 관련 수출 규제에 이어 제2선전포고”라며 “부끄러운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적반하장식 태도로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

고 있다. 주민과 함께 ‘모두가 안사! 내 가! 불매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일본 2차 경제보복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년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에 한국 선수단이 불참하지는 ‘강력 처벌’까지 주문했다.

들불처럼 번졌던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여행 보이콧은 절정에 치달고 있다. 주류·의류 등에서 낚시, 카메라, 자동차, 애니메이션 업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환준기자



‘일본은 없다’ 촛불 타올라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가운데 지난 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별례 지역 날씨 최저/최고/인

☀ 해돋이 05:44/해질 19:33
🌙 달돋이 10:09/달질 22:36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60
한낮 야외활동 삼가세요
- ▶빨래 80
빨래 하기 좋은날
- ▶세차 90
세탁물 단장해 보세요
- ▶운동 50
땀을 많이 흘릴 듯

지역	강수확률(%)	지역	만조	간조
광주	0-0	목포	05:23	10:25
목포	0-0	순천	17:36	22:37
순천	0-20	여수	12:10	05:52
여수	0-0		--	18:08

지역	남부 (동향/파고)	남해 서부 (동향/파고)
오전	앞바다 ☀ 북동-동/0.5-0.5m 먼바다 ☀ 북동-동/0.5-1.0m	오전 앞바다 ☀ 북동-동/0.5-1.0m 먼바다 ☀ 북동-동/1.0-2.0m
오후	앞바다 ☀ 북동-동/0.5-1.5m 먼바다 ☀ 북동-동/0.5-1.5m	오후 앞바다 ☀ 북동-동/0.5-2.0m 먼바다 ☀ 북동-동/1.0-2.0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8월 6/화 ☀ (26/32)	☀ (27/37)	☁ (24/29)	☁ (24/35)	☁ (24/32)	☁ (25/31)
7/수 ☁ (25/30)	☁ (25/32)	☁ (24/29)	☁ (25/31)	☁ (24/31)	☁ (25/30)
8/목 ☁ (25/30)	☁ (25/33)	☁ (24/29)	☁ (25/32)	☁ (24/33)	☁ (26/30)

▶날씨안내 : 국민없이131

펄펄끓는 더위...광주·전남 피서 절정

물놀이장·계곡·해변 인파 붐비

광주·전남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4일 펄펄 끓는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피서지 곳곳이 인파로 북적였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맡기는가 하면, 도심속 피서지를 찾아 가마솥 더위를 피했다.

도심 피서지로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모은 북구 오동동 ‘광주시민의 숲’ 내 물놀이장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과 가족들로 붐볐다.

어린이들은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물놀이기구를 타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혔다. 물놀이장 이외에도 주변에는 오름놀이터와 트리하우스, 유아대피소와 야영장 등이 갖춰져 있어 어린이들이 물놀이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물놀이장에도 주말을 맞아 방문한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80m 길이의 워터슬라이드에는 아이와 함께 튜브에 몸을 실은 부모들이 함께 즐겼으며, 작은 풀장에서는 물에 뛰어들어 더위를 잠시나마 잊은 어린이들

로 가득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전남의 유명산과 계곡·해변에 구름 인파가 몰려들었다. 전남의 대표 계곡 맛으로 떠오른 곡성의 도림사·청계동·태안사 계곡에 방문한 시민들은 맑고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돛자리에서 쉼겨온 간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에는 이날 오전 2천여명이 찾아 울창한 대나무 숲이 그늘을 만들어낸 산책로를 걸으며 휴일 한때를 보냈다.

장성 죽령산 편백숲에서는 산림욕을 통해 피톤치드를 마시며 편백나무 아래 그늘을 거닐며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로 만원을 이뤘다.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의 만성리검은모래해변에는 푸른파도에 몸을 맡긴 피서객들이 무더위를 날렸다. 피서객들은 파도를 그늘에서 쉬거나 바닷물에 뛰어들어 여름을 즐겼다.

해남 고천암에 새로 개장한 예코 생태공원은 주말에만 500여명이 다녀갔다.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바닷관수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는데, 인근에 위치한 자연생태체험공원이 더위를 잠시나마 잊은 어린이들

/오송지자

日 도발에 성노예·강제동원 피해 생존자들 분노

90대 중·후반 고령으로 매년 사망자 수 늘어나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 하에서 평생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를 끝내 받지 못하고 한 많은 생을 떠나고 있다. 아베 정권이 적반하장격 ‘경제침략’을 노골화 하면서 생존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군 성노예 피해 생존자 1명이 별세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정의기억연대는 ‘할머니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모두 잊으시고 편안하시기를 바란다’고 추모했다.

올해 들어서만 이반이 다섯 번째다.

지난 1월28일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하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가 향년 93세로 유명을 달리 했다.

지난 3월3일에는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생존자였던 곡예남 할머니(94)가 별세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또 다른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 240명 가운데 220명이 세상을

떠났다. 생존자는 20명으로 줄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는 지난 2월 정부 의료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전국에 4천34명이다. 이중 485명이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미 고령인 생존 피해자들의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1년 1만7천148명이었던 전국 총 생존 피해자는 2015년 9천937명으로 1

만명 아래로 내려간 뒤 ▲2016년 8천75명 ▲2017년 6천570명 ▲2018년 5천245명 ▲2019년 4천34명으로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지난해에만 총 180명이 숨졌다.

대다수 피해자의 경우 현재 90대 중·후반으로 대부분 요양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사죄와 배상이 이뤄져야 할 예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는 경제침략까지 감행하면서 우리 민족을 또다시 위협하는 무모함을 서슴지 않고 있다.

/문철현기자

강제징용 소송 지원단체 “경제보복 굴하지 않을 것”

미쓰비시 자산 매각 절차대로

일제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일본이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판결을 끌어낸 시민단체는 “영향을 받지 않고 후속 절차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인 대표는 4일 “인권 구제와 피해 회복,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제 보복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일본의 무모한 발상을 보면서 자기반성은 커녕 아직도 한국을 식민지나 속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일본의 조치에 영향을 받을 필요도, 주춤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집단적인 자체 행위인 제 살 깎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인간이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의 후속 조치로 압류된 미쓰비시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매각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이 집단적인 자체 행위인 제 살 깎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인간이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압류된 상표권은 영어로 된 미쓰비시 상표 문자와 문양, 압류된 특허권은 발전 기술에 관한 특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지자

동구 온라인 ‘일자리공유카페’ 개설

광주 동구가 민선7기 공약사항 중 하나인 일자리 공유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일자리공유카페’를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동구청 홈페이지와 동구두드림 앱을 통해 선보이는 ‘일자리공유카페’는 광주 전체 일자리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공유카페는 동구와 타 지역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채용 등 관련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외에도 구청별로

공고하는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정보를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구직편의성을 높였다. 워크넷·고용노동부·직업훈련포털 등 일자리정보 사이트를 한데 모아 통합 검색을 높이고 창업지원센터 관련 정보 제공, 비공개 게시판인 ‘구직상담방’도 운영한다.

이와는 별도로 오프라인에서도 구직상담이 가능한 ‘취업상담 전용창구’를 운영한다. 동구청지원센터 2층에 마련된 상담창구는 8월부터 전문직업상담

사가 배치돼 구인구직 관련 등록, 상담, 취업알선 등을 돕는다.

더불어 동구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 청년, 중장년층 등 대상별로 전문가 집단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 취업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택 동구청장은 “일자리공유카페를 통해 구직자와 구인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한자리에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맞춤형일자리 지원, 청년창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송지자

경미한 학폭 학교서 해결 교육지원청에 업무 이관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 2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에서 사건을 자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학기부터는 학폭위 기능이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교육 관련 8개 법안이 통과했다.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올해 9월부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면 학교장이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설치해, 기존에 일선 학교의 학폭위가 수행하던 기능을 심의위로 이관한다. 심의위에는 전담 인력과 변호사 등을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 비중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가해·피해 학생 재심 절차가 각각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와 학교폭력대책지역위로 이원화돼 있던 것은 폐지되고 가해·피해 학생 모두 조치에 불복하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일원화·간소화됐다.

/연합뉴스

서구, 4대 불법주정차 행위 뿌리 뽑는다

소화전·버스정류소 등 집중단속

광주 서구가 4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주민신고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것.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차하는 행위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과태료도 3일부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서구는 4대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과

함께 근절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서구는 교원공제사거리 앞에서 서부경찰서, 서부모법전문사회, 서부노숙어머니회, 어린이 안전학교 서부지회, 해병대 전우회 서구지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4대 불법주정차 행위 금지 및 24시간 단속 사항 등을 집중 홍보했다.

서구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구간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광주 공립유치원 교사 최종 합격자 발표

광주시교육청이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5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시험은 지난 4월22일 시행계획 공고로 시작으로 1차 교직논술과 교육과정,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수업실연·수업면접까지 총 2단계 전형으로 실시됐다.

전체 502명이 지원해 이 가운데 11명

이 최종 합격했으며, 선발 분야별 최종 합격 인원은 유치원 교사 11명(장애 0명)이다. 합격한 11명 전원 여성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7명(63.6%), 30대가 4명(36.4%)이다.

최종합격자 공고는 5일 오전부터 교육청 누리집과 ‘온라인채용시스템’에 게재한다. 합격자를 확인한 임용후보자들은 29~30일 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에 임용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종민기자